

해외출장 결과 보고서

「캄보디아 농촌개발 정책 및 전략 수립 PMC」사업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농촌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
니다.

2009. 7

I.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2차 워크숍 수정보완 사항을 위한 현지보완조사, 현지 Counterpart와 최종보고서 내용 검토 조정
2. 출장자 : 농림기술관리센터 김용택 소장(선임연구위원)
3. 출장지역: 캄보디아 프놈펜 외
4. 출장기간: 2009년 7월 7일(화) ~ 7월 13일(월) (5박 7일)

II. 출장 일정

일 자	주요 업무	주요 면담자
2009. 7. 7(화)	○ 인천 국제공항 → 프놈펜 국제공항 ○ 프놈펜호텔 check in	
7. 8(수)	○ 캄보디아 용역단 업무회의 - 현지 업무계획 협의	○ 김병철 단장
7. 9(목)	○ CARD 방문 및 RPC 논의	○ 임샬리 부총리 ○ 소카람 CARD 국장
7. 10(금)	○ 농촌경제분야 보완사항 토의	○ 판서폰 농촌경제과장
7. 11(토)	○ 국문 요약보고서 작성	○ 데츠 농촌경제계장
7. 12(일)	○ 전문가 파견 결과보고서 작성	○ 데츠 농촌경제계장
7. 13(월)	○ 인천 국제공항 도착	

Ⅲ. 출장 결과

1. 김병철 단장과의 회의

- ☐ 최종보고서 제출 계획 논의
 - o 워크숍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최종 원고 작성
 - o 6월 30일까지 PM이 제시한 작성지침에 따라 분야별 최종원고 제출
 - o 국문 요약보고서도 가능하면 영문보고서에 준하여 작성
 - o 현재 MRD가 한국 컨설턴트들이 작성하는 최종보고서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으므로 분야별 전문가들은 가능한 좋은 보고서를 작성하길 기대
- ☐ MRD는 한국 컨설턴트의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면 이를 크메르어로 번역하여 MRD 부서별 교본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음.
 - o MRD는 각 분야별 최종원고에 대한 전문 검토의견 팀을 5인으로 구성하여 분야별로 보다 자세히 검토할 예정
 - o MRD 공무원 12명이 2009년 7월 초에 한국의 농촌개발을 배우기 위하여 농촌공사를 방문할 예정임.

2. Sao Chivoan 차관과의 협의 내용

- ☐ 최종보고서 작성 요령에 관하여 협의
 - o MRD 시행 정책을 잘못되었다고 서술하는 방식을 자제
 - o 분야별로 상이한 통계들은 일치시켜 작성
 - o 국제기구 보고서와 같은 양식으로 작성
 - o 영어 표현 등은 잘 편집하여 작성

3. 향후 일정

- ☐ 향후 일정 논의
 - o 6월 말까지 분야별 최종보고서 작성
 - o 2009년 7월 23일 현지 용역팀 철수
 - o 2009년 8월 22일 수정된 최종보고서를 KOICA에 제출

4. 보완 조사 항목

가. 캄보디아 농촌경제의 SWOT 분석

☐ 장점

- o 방대한 미개발 토지 보유
- o 지리적 이점: 근거리로 조달이 용이하고, 해상운임 경쟁력 확보
 - 조달기간: 미국 Gulf 35일 남미 45일, 캄보디아 10일
 - 해상운임(08. 3월 기준): 미국 Gulf \$115/MT, 남미 \$130, 캄보디아 \$50
- o 정부의 시장친화적 정책/투자 인센티브
 - 저개발 국가 중 시장 친화성이 가장 높은 나라임.
- o 노동력 강점
 - 임금이 낮은 반면, 근로의욕이 높고 근면성이 강함.
- o 기타
 - 외화 해외송금의 자유보장

☐ 단점

- o 토지 사용권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미흡
- o 열악한 도로 및 항만 인프라
- o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족(특히 관개시설 부족)
- o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 유통 판매 조건

- o 내륙 물류여건 열악: 농촌도로의 총 연장은 28천km이나, 이중 11천km만 이 흙 포장으로 개보수, 나머지 도로의 대부분은 통과가 불가능하며 특히 우기에 더욱 열악함.
- o 항만시설 부족: 대형 항구는 프놈펜과 시하노크빌 정도임. 부두장비 열악하고, 희소성으로 인해 크레인 등의 사용비용 과다발생
 - 프놈펜 항: 300m짜리 부두와 2개소의 부교, 우기 5천톤, 건기에는 2천톤 급 선박만 입항 가능(건기와 우기의 수심차이는 10m에 달함), 시하노크빌 : 250m짜리(수심 10~11m), 350m짜리(7~8m) 부두 각 1개소, 선박의 운송이 가능한 수로의 총 연장은 1,800km
- o 수출입 통관의 어려움: 통관 등 준 조세성격의 비용이 과다지출 됨. 각종 행정서류 발급비용 과다. 통관수속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창고보관료

등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

나. 캄보디아 쌀 산업

- 캄보디아에서 있어 가장 중요한 산업은 쌀 산업이며 캄보디아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줌과 동시에 농업 및 농촌경제에 가장 중요한 산업임.
 - 캄보디아 총 노동력의 50%가 쌀농사에 종사하고 있으나 쌀 생산의 부가가치는 전체 GDP의 9% 수준에 지나지 않음.
 - 이와 같이 캄보디아에 있어 쌀은 농업과 농촌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나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
 - 이런 쌀 위치는 캄보디아에서 농촌빈곤을 탈피하기 위하여서는 쌀 생산과 유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쌀 생산

- 2008년 농업 GDP 성장률이 3.7%를 기록한 반면 쌀은 2.4% 성장
- 약 192만 ha에서 417만톤 가량의 쌀을 생산하여 ha당 2.2톤 정도의 생산성을 나타내고 있음.
- 1995년에 국내 쌀 자급을 달성한 후 매년 잉여분이 발생하게 되었고 베트남, 태국에 벼로 수출하고 있음. 그러나 각 지역을 보면 생산성이 낮은 곳이 여전히 많이 있으며 지역별로는 식량부족지대도 다수 존재
- 농지가 소규모로 분화되고 관개면적이 7% 정도에 불과하여 2모작 이상이 어려운 곳이 많아 생산성 증대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생산 자체가 강우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생산량 변동이 큼.

□ 벼 재배

- 캄보디아의 벼 재배는 건기와 우기에 이루어짐.
 - 건기벼는 톤레삽 호수 주변에서 건기에 접어들면서 물이 빠짐에 따라 드러나는 저지대에 재배(건기 퇴수재배)하거나 기존 저지대에 관개하여 재배(건기 저지대 관개재배)
 - . 전체 벼 재배면적의 약 8% 정도로 관개에 전적으로 의존
 - 우기벼는 그 외 천수답 지역에서 재배(저지대 천수재배)하는 것으로, 재배기간은 5월~11월임(조생종, 만생종 모두 고려할 때).
 - . 거의 전지역에서 재배되며 주산지는 톤레삽 호수, 바삭강, 메콩강 주변

□ 수급 현황

- 쌀 생산량은 2000년대 초반 이후 4백만 톤 내외이며, 이 가운데 200만 톤 정도가 소비자에게 공급되어 10만 톤 이상의 잉여가 있는 것으로 보고됨.
- 도정률은 62~64%로 상당히 낮아 쌀의 품질이 낮으며, 이러한 상황은 2000년대 후반에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수출을 위한 규격 쌀의 생산이 어려움.

□ 유통 관련 현황

- 캄보디아의 쌀 유통의 일반적인 경로
 - 지역 거주하는 1차 수집자(대부분은 농가이기도 함)가 소·중형 트럭으로 농가를 돌고 집하 → 지역의 정미소 혹은 2차 수집자에 공급 → 다른 주 혹은 외국으로 수출하는 업자에게 공급
- 쌀 거래 관행
 - 거래 표준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매도가격은 거래 때마다 다름.
 - 가격정보는 수집상이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가는 거래상 약한 입장이며, 또한 집하업체는 공정하지 않은 저율로 계량, 우수리를 버리는 등 계량방법이 정확하지 못함.
 - 농가는 고수분의 벼나 이물질이 들어간 벼를 출하하는 것으로 대항하기 때문에 품질이 낮은 벼의 저가 매매가 지속되는 악순환에 빠짐.

□ 도정시설

- 도정시설 현황
 - 바탐방 주 등 일부 쌀 주산지에는 일부 도정공장이 자가 브랜드로 판매하는 등 비교적 선진적인 유통체제를 갖추고 있는 곳도 있음.
 - . 바탐방에는 330개 정도의 도정공장이 있음.
 - 도정 등 가공기술이 낮아 상품으로서 수출은 어려움.
 - 벼를 다량 구매하여 도정할 수 있는 자금능력을 갖춘 도정업자는 많지 않고, 구매하여 보관할 수 있는 창고시설도 부족하여 영세한 규모로 도정하고 있는 실정임.

□ 벼의 수출

- 벼의 수출은 정곡이 아닌 벼 상태로 이루어짐.
 - 쌀 주산지에서 과세나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잉여 농산물이 유출되는 경향

이 많아서 수출량에 대한 통계치는 믿을 수 없음.

- 도정과 창고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저품질의 쌀이 국내외에서 유통되는 상황
 - 농가는 수집상에게 저가로 판매하고 소비자는 베트남, 태국 등지에서 도정된 정미를 고가에 구매하게 되는 문제
 - 초과 생산되는 벼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비공식 루트를 통한 벼 수출을 줄이고 캄보디아 내에서 도정하여 수출하여야 하나 자금이 부족한 상태임.

□ 캄보디아 쌀 생산의 부가가치가 낮은 원인은 관개시설의 취약, 낮은 생산단수, 높은 수확 후 손실, 소규모 영농, 빈약한 쌀 가공시설(건조, 저장 등) 기술이전의 미흡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캄보디아 쌀 생산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캄보디아 농촌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중의 하나이며 이를 위한 가장 빠른 정책적 고려는 수확후 손실을 최소화하여 생산량과 생산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캄보디아 쌀 수출을 증대시키는 것임.

□ 따라서 MRD 농촌경제과의 주요 임무인 농촌 중소기업들을 활성화 시키며, 농산물유통(특히 쌀 유통)을 개선시키며, 농촌소액금융대출의 확대하는 것으로서의 적절한 시범사업은 RPC (Rice Processing Center)를 건설하여 이를 전국에 보급하는 것임.

5. 농촌경제분야 요약(국문)

지난 10년간 캄보디아 경제는 매년 7%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을 보여 왔다. 이처럼 매년 캄보디아 경제는 높은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성장률 수준은 매년 큰 차이를 나타낸다. 이렇게 캄보디아 경제성장률이 매년 크게 바뀌는 이유는 캄보디아의 경제가 농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캄보디아 농업은 쌀 농업이 중심이고 캄보디아 쌀 농업은 기후에 큰 영향을 받고 있어 가뭄이나 홍수 같이 자연재해가 있는 해는 쌀 생산이 크게 감소하고 이로 인해 농업성장률이 낮아지고 결국 이는 전체 경제성장률까지 낮게 만드는 것이다. 또 기후가 좋아 풍년이 들 경우 농업성장률이 높아지고 이는 전체 경제성장률까지 높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캄보디아 농업은 전체 GDP의 34%, 전체 고용의 70%이상을 차지하며 농촌인구의 85%가 농업에

종사하며 가난한 이(절대빈곤선 이하 계층)들의 79%가 농업에 생계를 의지하고 있다. 이런 캄보디아 상황은 캄보디아에 있어 농업은 농촌경제뿐만 아니라 일반경제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는 캄보디아 경제의 중추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캄보디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경제성장의 과실은 대부분 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돌아가고 농촌에 거주하는 이들은 경제성장으로 인한 혜택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갈수록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는 커지고 있다. 캄보디아의 지니 계수는 1993년에 0.347이었던 것이 2004년에 0.403으로 높아져 갈수록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커짐을 잘 나타내고 있다. 주로 경제성장의 혜택은 수도인 프놈펜과 프놈펜 인근, 그리고 시엠립-앙코르와트에 돌아가고 있다.

캄보디아는 많은 이들이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이들의 대부분이 절대 빈곤 상태에 처해 있다. 캄보디아에서 빈곤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는 농업소득이 낮기 때문이다. 이렇게 농업소득이 낮은 이유는 캄보디아 농업이 쌀 위주의 농업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농촌하부구조가 취약하며, 농업기술이전이 미흡하며, 농산물 유통도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농촌에 대여되는 자금이 부족하며,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토지소유권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전쟁 때 문헌 지뢰가 농촌 곳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비농업소득이 낮기 때문이다. 농외소득을 얻을 기회가 부족하고, 농산물 가공공장들이 잘 운영되지 못하며, 농촌관광이 미흡하고, 농촌관련 공공사업에 취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농촌 위생과 보건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실제 소득 증가가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들의 소득이 낮게 된다.

따라서 캄보디아어 농업은 농촌의 절대 빈곤을 축소하는 측면에서, 높은 경제성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측면에서, 농촌의 유희노동력을 흡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며 국민경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농촌경제는 생산 활동부터 유통 활동, 수확 후 활동 및 소비 활동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과 전략 수립에서 다루어야 할 범위 또한 매우 광범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촌경제의 전 분야를 다룬다면 캄보디아 농촌개발부에서 관련하는

농촌경제 활성화 업무를 보다 자세히 분석하지 못하게 되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 및 전략 수립이 어려워지게 된다. 따라서 농촌경제 분야에서는 농촌개발부 농촌경제과가 주로 다루는 분야의 실태를 집중적 파악하여 필요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개발부 농촌경제과에서 주로 다루는 업무는 농촌소액대출사업, 농촌 중소기업체 지원사업, 농산물유통사업 등 3가지 업무이다. 이들 농촌경제과에 다루는 농촌소액대출사업, 농촌 중소기업체 지원 사업, 농산물 유통사업 등은 농림수산부, 산업부, 광산 및 에너지부 등의 업무와 중복되는 업무들이 많다. 농촌경제과는 이들 3가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제 농촌개발부 예산에 농촌경제과 소속 사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0.4%(2007년)에 지나지 않아 거의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

캄보디아 농촌 소액대출사업도 금융 산업이 정한 규칙에 따라 운영되므로 소액대출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캄보디아 전반적인 금융운영체제를 이해해야 한다. 캄보디아 금융체제는 1990년대 초반에 확립되었고, 1991년 파리 평화조약에 따라 NGO들이 소액금융사업들을 시작하였다. 2008년 현재 소액금융체제는 17개의 허가받은 소액금융기관과 25개 등록된 NGO 기관, 60여개의 비등록 금융기관들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소액금융체제는 자금을 가난하고 먼 농촌에서 농촌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에게 제공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2007년 3월 현재 대출규모는 435.7 KHR Bil로 대략 48만 5천명에게 대출을 제공하였다. 현재 농촌개발부가 운영하고 있는 농촌소액대출체계(MRDACS)는 25개 등록된 소액대출기관의 하나이다. 농촌개발부 농촌소액대출사업의 고객은 3,633가구이며 대출규모는 대략 USD 526,000이며, 전체 대출금의 80.3%가 주로 농업용으로 사용되었다. 농촌개발부가 운영하는 소액대출체계는 지난 5년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대출 대상지역이 2003년에는 4개 지역이었으나 2008년에는 7개로 늘어나 75%가 증가하였으며, 고객의 수나 직원 수도 크게 늘어났다. 아울러 대출규모와 재원 또한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농촌개발부의 농촌소액대출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된 이유는 (1) 표준화된 신용서비스 운영절차, (2) 전산화된 금융회계관리, (3) 신용서비스 담당직원의 능력 개선, (4) 직원 교육, (5) 정기적인 운영관리, 모니터링, (6) 관리체계를 지속가능하게 할 정도의 이자율, (7) 농촌도로로 잘 연계된 대상지역, (8) 지역사무소와 마을 신용위원회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등이다. 농촌소

액대출사업에서 문제가 되는 과제는 소액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고, 소액금융에서 제공하는 자금의 이자율이 다소 높으며, 상업은행들이 농촌소액대출사업에 잘 진출하지 않으려고 하며, 농가공산업체들이 수익을 얻는 시기(계절적 시기)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등이다.

농촌 중소기업체 지원 사업에 있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관련 기술들이 노후화 되어 있으며, 전통적인 기술을 사용하고 훈련이 부족하며, 자금 부족, 운영규모가 소규모이며, 얻는 소득 또한 매우 낮은 것 등이다.

농산물 유통사업에서 나타나는 제약요인으로는 유통시설이 불충분하고, 자금 지원이 제한되어 있으며, 농산물유통 지원기관들이 취약하며, 시장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것 등이다. 또한 수출제약요인으로는 국경에서 거래되는 교역량에 대한 수수료, 수출에 대한 규격화 표준화 미흡 등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캄보디아 농업과 경제에 있어서 쌀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쌀 생산은 대략 260만톤 정도이며 이들 생산을 도정하는 공장은 대부분이 소규모이다. 캄보디아 쌀은 비공식적으로 베트남이나 타일랜드로 수출되었다가 적절히 가공한 후에 다시 캄보디아로 수입된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의 하나는 쌀 도정업자들이 운영자금과 쌀 구매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전력비용이나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어 가공비용이 매우 높고, 높은 쌀 파손비율(40%)로 쌀 품질이 낮기 때문이다. 농촌개발부 농촌경제과의 임무가 농촌 소액대출, SMEs, 농산물유통 등이므로 쌀의 수확후 비용을 줄이는 정책을 수립하며 쌀 농가의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촌개발부의 정책 목표는 농가소득을 높이고, 농촌 인프라를 개선하며, 농업생산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생계위주의 농업을 상업적 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런 정책목표 하에 농촌개발부의 정책 방향은 농촌인프라를 개선하고, 농촌소액대출사업을 강화시키며, 농촌 연구와 지도체계를 개선하고, 농업용 자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 가공산업을 발전시키며, 농촌마을당 일품을 생산하는 일촌 일품운동을 확산시키는 것 등이다.

농촌소액대출사업의 정책 목표는 소액대출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혀 사업

의 지속성을 높이는 것이며, 훈련을 통하여 소액대출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배양하며, 소액대출사업의 대상이 먼 지역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대하는 것이며, 2010년까지 소액대출사업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2%까지 낮추는 것이다.

농촌소액대출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효과적인 소액대출운영체계를 확립하고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며, 진일보된 기술을 활용하고 전문화와 경쟁을 강화시키며, 충분한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체계를 운영하며, 바람직한 조직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보다 신축적인 운영체계를 수립하는 것 등이다.

농촌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위한 전략으로는 중장기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밀수를 방지하며, 규제의 관료화를 줄이고, 수출입 규모를 늘이며, 중소기업체들과 대규모 기업 간의 관계를 개선하며,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 등이다.

농산물 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는 농산물의 시장접근을 높이며, 수확 후 기술을 발전시키며, 농업용 투입재 공급과 자금지원을 제도화하며, 수출가능한 품목에 대한 종자를 개량하며, 기술개발을 발전시키고, 농가들의 유통조직을 육성하며 시장시설과 파머마켓을 발전시키는 것 등이다.

농촌소액대출사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에 중요한 것은 농촌금융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확보 전략, 소액금융기관들도 저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필요한 규제 강화 등이다. 이런 기본 방향에서 소액대출사업의 중장기 계획은 지속가능하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효과적인 소액금융체계를 확립하는 것으로 캄보디아 국립은행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소액금융과 관련된 구조적 위험을 피하며, 지방단위에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소액금융기관들의 경영정보체계를 개선하며, 대출자금의 도매기능을 강화하며, 지역 사무소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농촌과 인접한 지역의 소매 소액금융을 강화시키며, NGO와 MFI간의 연계성을 높인다 등이다.

소액대출사업을 위한 단기 계획은 그동안 성과가 좋았던 MRDCS를 확대하는 것이다. 매년 10만불의 재원을 마련하여 MRDCS의 새로운 자금제공의 원

천으로 활용하고, 종전의 MRDCS의 운영규정을 준수하면서 이자율은 달에 2.5%로 정하되 이를 2.0%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다.

농산물유통을 활성화 시키는 동시에 농촌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단기 전략으로 RPC(Rice Processing Center)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한다. RPC 건립의 추진 목표로는 농가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2015년까지 쌀 수출을 25% 증가하는 것이다. 시범사업의 규모는 2 백만불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활동으로는 기술지원을 위하여 한국전문가를 파견하고, 사업 시행 장소를 선정하며, RPC를 디자인하고 건립하며, 적절한 설비를 설치하며, 관련 이들을 교육시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